

日 時 2005年6月29日(水)

場 所 特別委員會會議室(議員會館 101號)

議事日程

- 1. 감사원 감사(청년고용 증진시책 추진실태) 결과 및 시정사항·조치계획 보고
 - 가. 산업자원부
 - 나. 노동부
 - 다. 중소기업청

審査된案件

- 1. 감사원 감사(청년고용 증진시책 추진실태) 결과 및 시정사항·조치계획 보고 1
 - 가. 산업자원부
 - 나. 노동부
 - 다. 중소기업청

(10시11분 개의)

○위원장 임인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되었으므로 제5차 일자리창출을위한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감사원 감사(청년고용 증진시책 추진실태)

결과 및 시정사항·조치계획 보고

가. 산업자원부

나. 노동부

다. 중소기업청

○위원장 임인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감사원 감사결과 및 시정사항·조치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국회에서는 작년 12월 9일 정부의 고용안정화사업의 집행이 부진한바 사업의 집행상황을 점검하여 정책적·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감사원에서 지난달에 감사결과를 발표하였으며 동 감사결과보고서는 여러 위원님들께 기 배부하여 드린 바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노동부

등 9개 중앙행정기관에서 모두 33개 사업에 5643억 원을 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실업률은 지난 4월 현재 7.8%로 1년 전보다 0.2% 높아졌다고 합니다. 감사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청년실업과 관련이 없는 곳에 청년실업대책예산을 지원하는가 하면 종합적인 인력수급 전망이 없이 부처별로 제각각 사업을 추진해 업무 혼선을 빚었으며 또한 고용안정센터 외 취업알선기관의 도덕적 해이 현상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특위에서는 감사원 감사에서 나타난 청년실업대책의 제 문제를 점검하고 대책을 모색하고자 하였습니다마는 유감스럽게도 오늘 이 자리에는 마땅히 참석해야 할 장관 또는 청장들이 합당한 이유 없이 참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관련해 먼저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지금 장관님이나 청장님이 안 나오셨는데 위원님들 생각이 어떠십니까? 한 말씀 해 보시지요.

○안홍준 위원 못 나오신다는 이야기를 위원장님이 사전에 받으셨습니까?

○위원장 임인배 노동부장관한테는 오늘 접견이 있다는 전화를…… 제가 볼 때는 합당한, 세 분

다 크게 중요한 일도 아닌 것 같은데 특위를 이렇게 무력화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여당 위원님들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그대로 진행할까요? 한 말씀 하시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경수 위원** 장경수 위원입니다.

일자리창출특위를 만들 때만 해도 우리가 청년 실업문제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일자리창출을 국회 차원에서 한번 여야가 논의해 보자 해 가지고 국민의 민생 문제를 다루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서 이렇게 했는데 가면 갈수록 정부 측의 관심이 낮아지는 것도 같고 지난번에도 노동부장관님이 오셨고 그다음에 중간에 어떤 장관님이 오셨다가 위원장님한테 말씀도 안 하고 이석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제가 다른 특위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자리창출특위가 무엇보다 현 상황에서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끝나고 나서 돌아가서 가지고 장관님들한테 앞으로는 일자리창출특위에 장관님이 꼭 참석할 수 있도록 건의해 주시고 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참석을 못 할 것 같으면 반드시 위원장님한테 허가를 득한 후에 다른 분을 참석시키더라도 해야지, 국회일자리특위에서 참석을 요구했는데 어느 분이 위원장님께 말씀도 안 하고 참석 안 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보고요.

오늘은 국회 본회의가 2시에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선에서 강력히 주의를 주고 또 특위 명의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재발을 방지하는 장치를 마련하면서 오늘 회의는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인배** 오제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오제세 위원** 저는 일자리 문제, 실업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일자리 문제가 우리 경제의 양극화 문제라든지 또 우리 경제의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문제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그렇게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먼저 저희 일자리특위에서 심각성에 대한 문제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만일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면 국회의 일자리특위가 과

연 존재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문제가 심각하다면 당연히 장관님들이 나오셔서 국회 일자리특위와 함께 이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과연 일자리 창출 문제와 청년 실업 문제가 대단히 심각한 문제냐, 그렇지 않으면 정부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그다지 심각하지 않고 또 특히 세계적인 현상이고 OECD의 평균 일자리보다 우리나라의 실업률이 더 높지 않다 이런 데서 오는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없는 데서 오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먼저 심각하게 논의하고 만일 심각하다면 이것에 대해서 장관님들께 철저히 다시 한번 인식을 갖도록 촉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인배** 오 위원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다른 분 의견이 없으면 앞으로 세 분이 본청이나 본부에 돌아가셔서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 같은 것을, 이 상황 분위기를 잘 전해 주시고 오늘 성실한 답변과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위에서는 수감대상기관인 9개 중앙행정기관 모두를 대상으로 보고를 들어야 하겠습니다 마는 우선 오늘 회의에서는 관련 사업 수가 많고 감사원으로부터 많은 지적을 받은 3개 기관부터 먼저 보고를 듣고 다음 회의 시 타 기관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진행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개 정부기관의 보고를 차례로 듣고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산업자원부로부터 감사원 감사결과 및 시정조치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자부차관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자원부차관보 오영호** 산자부차관보 오영호입니다.

우선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감사원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말씀드리기 전에 청년실업과 관련된 경제동향하고 저희 산자부에서 특히 역점을 두는 사안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실물경제는 회복단계에 들어가 있다고 보고는 있습니다마는 회복 속도가 늦은 상황이고

요. 또 하나는 고유가가 지속됨에 따라서 업계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다만 수출이 환율 하락이라든가 고유가 이런 불리한 대외여건에도 불구하고 6월 오늘까지 두 자리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어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또 경제구조 자체가 산업화시대에서 정보화시대로 넘어가면서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장과 고용창출이 최대 정책목표로 인식되고 있고요. 그러한 차원에서 산업자원부는 청년실업대책하고 관련해서 특히 전문인력 양성 쪽에 초점을 맞추면서 인력의 수요자인 기업수요에 맞게 실업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감사원 감사는 청년고용 증진시책의 추진 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추진시스템과 성과를 평가한 것으로 감사의 취지를 반영해서 신속하게 후속조치를 이미 취하고 있는 것도 있고 법적으로 보완해야 될 사항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1페이지 감사개요에 대해서는 생략드리겠습니다.

산자부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전부 7건이었습니다. 주의 2건, 통보 5건, 권고 1건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7건이고요.

그것에 대한 조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사항이 대외무역법 제8조에 규정된 통상진흥시책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법에서 규정된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관련 업무를 철저히 시행하라는 것이 감사원의 통보였습니다.

저희가 통상진흥시책에 대한 기본계획은 만들고 있습니다라는 시·도별 통상시책이 포함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금년 9월에 내년도 통상진흥시책 초안을 마련해서 지자체에 통보하고 지자체로부터 거기에 청년실업 부분이 포함되는 것을 받아 가지고 금년 11월쯤에 내년도 통상진흥시책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법정기본계획 수립·시행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전력기술진흥계획과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에 시행계획 수립이나 시행이 부적절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력기술진흥기본계획의 기본계획은 만들어져 있는데 시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전기연구원에서 정책연구를 다음달 시작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용역이 나오는 것을 반영해서 내년 중에 전력기술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고요, 수립이 된 이후에 관계행정기관과 협의해서 세부시행계획을 작성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 시행계획 수립과 관련해서는 시행계획을 7월에 만들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라는 시행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청년실업 예산사업 계획수립 및 집행 부적정 지적에 대해서는 첫 번째로 신기술 중소기업 인력지원 사업 시행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신기술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이라는 것은 이공계 대졸자로서 미취업 상태인 사람하고 상시근로자 수가 1000인 미만인 중소기업으로 한정해서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도 예산 집행률이 41%밖에 안 됐고 취업률도 23%로 낮았습니다. 또한 도중에 사직하는 사람들도 늘어나는 등 사업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인 분석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라는 노동부에서 작년 10월에 좋은 조건으로 좋은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사업이 그쪽으로 대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서 금년도부터 이 사업은 폐지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청년실업 예산사업 추진 방법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첫 번째 지적사항으로 해외연수나 취업지원사업의 추진 방법이 부적절하다고 했는데 이것은 해외연수나 취업지원사업이 노동부에서도 하고 산자부에서도 하고 중기청에도 유사사업이 몇 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업 참여기관의 정보와 조직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지지 않고 있고 또 증장기적으로 이러한 사업이 공동 추진될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7월 초에 사업 참여기관 간 정보와 조직의 활용 방안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고 7월 말에 사업 공동추진 방안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 지적사항으로 있었던 것이 이공계 미취업자 현장연수사업을 함에 있어서 객관적인 실적 연수기관 선정 심사 시에 반영이 안 됐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연수수당 집행 금액에

대해서 일부 부당하게 집행이 된 것에 대해서는 사업비 정산 시에 감액조치도 하고 연수기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라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부터는 연수기관 선정할 때 기존 기관별로 취업률이라든지 중도포기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량화해서 연수기관 선정 시에 평가 지표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2월부터 일부 취업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연수지원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지원 검색 시스템을 마련을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사업평가관리규정을 개정해서 연수기관의 문제 사안별로 사업 참여 제한이라든지 지원금 환수 등 별도 세부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는 청년실업 예산사업의 조정 기능이 미흡하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무역인력 교육사업이 청년실업대책으로는 부적합한 것 아니냐, 왜냐하면 사업계획이 무역에 관심 있는 학생의 현장실습 지원이고 대학 재학생으로 제한을 두다 보니까 실업자를 위한 사업이 아닌 것 아니냐, 또한 취업 인원에 대해서 무역 관련 취업 퍼센티지도 낮고 취업 지원효과도 낮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돼서 저희는 이 지적에 대해서 백번 공감을 하고 따라서 청년실업대책에서 이것을 제외하도록 하고 노동부에도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그다음으로는 법정 기본계획 수립 관련 규정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에 품질경영중합시책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수립주기가 들쭉날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개정법률안에 수립 주기를 규정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13일에 규제 심사를 완료했고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서 9월 달에 이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업 및 국가자격시험 응시 자격사유 규정이 불합리하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자유무역지역 내의 입주영업 자격사유에 미성년자가 있습니다. 그 미성년자를 삭제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지적입니다.

왜냐하면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본인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서 영업이나 국가자격 취득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취지였습니다.

따라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뿐만 아니라 이걸 포함해서 19개 법령에서 미성년자들에 대한 자격사유를 규정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11개 기관, 19개 법령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주무부처인 노동부에서 일괄 개정토록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인배 산자부차관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동부로부터 감사원 감사결과 및 조정·조치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석 노동부차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오늘 김대환 노동부장관이 안 나오셨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 2월 28일 제4차 일자리창출특위에서 최근 국가적으로 현안이 되고 있는 청년실업 문제라든가 외국인 근로자 불법체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당연히 노동부장관께서 일자리창출특위에 나오셔서 국가의 여러 가지 급한 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일자리창출특위 위원님들에게 협조를 구하고 이래야 됴도 불구하고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까.

노동부장관이 참여를 하지 않으면 본 위원이 준비한 여러 가지 자료들이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차관께서 이 질의에 대해서 다 답변할 리도 만무하고요.

위원장님께서도 일자리창출특위에 장관이 오지 않는 데 대해서 사전에 미리 연락을 받으셨는지요?

○위원장 임인배 어제 전화가 왔더라고요. 전화를 해서 급한 일이 있어서 오늘 못 오겠는데 양해해 달라고 해서……

정말 청년실업이 심각하고 가장 큰 과제인데 정부에서 청년실업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너무 관심이 없는 것 같고 특위 할 때마다 오셔서 가지고 답변도 안 하고 중간에 빠져나가는 일도 많고 이러신데 앞으로 정부에서는 이 점을 좀 반성을 하고 앞으로 성실하게 참석을 하고 답변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래서 저는 노동부에 대한 보고는 받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현안도 문제지만 지난번에 노동부장관께서 답변을 할 때, 2월 28일 제4차 일자리창출특위에서 여러 가지 노동부에 대한 현안을 한 20분에 걸쳐서 질의를 했는데 김대환 노동부장관의 답변이 거의 형식적이었고 모른다는 답변과 무성의한 답변으로 일관하다가 그러면 다음 회의 때 거기에 대한 자세하고 소상한 정부의 대책이라든가 노동부의 계획을 보고해 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3월 2일날 인력수급이라든가 올해의 계획을 확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노동부차관의 업무보고는 받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인배 이재웅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웅 위원 지금 노동부 문제도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방금 산업자원부에서도 스스로 시인을 했고 또 감사원에서도 지적을 받은 바는 노동부·산업자원부·중소기업청 심지어는 교육부까지 모든 부처들이 연결돼서 심각한 청년실업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본 위원이 첫 회의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국무조정실에서 책임 있는 자리에 나오지 않았다는 것도 참으로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각 부처별로 심각성을 가지고 회의를 해서 조정을 했더라면 이런 유사 중복지원사업에 대한 감사원 지적은 안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책임 없이 그냥 말로만 그렇게 해보겠다는 답변을 한 데 대해서도 본 위원회에서 반드시 책임 추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무조정실장께서도 오후 회의에라도 반드시 출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님께 적절한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박상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인배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상돈 위원 박상돈 위원입니다.

박순자 위원님을 비롯해서 몇 분 위원님들께서 노동부차관의 보고는 받을 가치가 없다는 요지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저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오늘 일자리특위가 어렵게 개의회가 됐고 또 노동부장관이 임의로 불참을 했다면 모르겠지만 위

원장의 허락을 득해서 불참을 했다면 대리로 참석한 차관의 보고를 들어야 될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노동부차관이 보고하고자 하는 것은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 그리고 그 사항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내용이 주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고는 받고 그다음에 노동부장관을 참석하게 하는 회의를 별도로 소집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봅니다.

저 자신도 오늘 바쁜 가운데 일자리특위에 참석을 해서 나름대로 추궁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국적으로 위원장님이 판단을 해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 박상돈 위원님께서 하나 정정해 주셔야 될 게 있습니다.

제가 노동부차관의 업무보고를 받을 가치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의미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 점은 다시 정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상돈 위원 예.

○위원장 임인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다음 특위 때는 꼭 관계 장관들이 출석하도록 강력히 추구를 하고 오늘은 일단 감사원 감사 결과보고니까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위원장님, 왜 제가 말씀드렸느냐 하면요. 일자리특위가 국회 내뿐만 아니라 국민들로부터 관심사입니다. 가장 국가적인 문제가 이 자리에 다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이 6월 30일이 일자리창출특위의 만기입니다. 더 이상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이 만기일입니다. 아직 본회의에서 일자리특위가 연장되지도 않았고 그래서 오늘이 일자리특위 마지막 회의라고 생각한다면 국무위원들이 이렇게 무성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가장 국가적인 현안이 일자리 창출을 비롯해서 노동 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산업현장에서의 인력 수급 과정입니다. 오늘이 마지막인데도 불구하고, 특히 감사원의 업무지적사항이라면 이 자리에서 정부 계획을 밝히고 협의하고 진지한 논의가 펼쳐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런 발언의 요지를 말씀드렸고 오늘이 일자리창출특위의 마지막 회의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국무위원들이 이럴 수가 있단 말입니까?

○위원장 임인배 그 점은 저도 동감입니다.

하여튼 일단 보고를 받도록 하지요. 받고 어떻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차관 정병석 존경하는 임인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정부의 청년실업대책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와 그 시정·조치계획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청년실업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서 2003년 9월 22일 15개 부처 공동으로 청년실업종합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이 대책에 따라서 2003년에는 2968억 원을 투입하여 13만 명의 청년층에게 단기일자리, 직장체험, 직업훈련의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2004년에는 5848억 원으로 18만 6000명이 참여하는 청년실업대책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정부는 청년실업대책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04년에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에 평가를 의뢰한 바가 있고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민간 전문가, 각급 기관 취업 담당자, 관계 부처 등으로 청년실업 대책T/F를 구성해서 청년실업종합대책의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평가해 왔습니다.

또한 국회의 청구에 의해서 2004년 10월부터 금년 1월까지 청년실업대책 전반에 대해서 감사원의 감사도 받은 바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일련의 평가·감사 결과 등에 기초하여 그간의 대책을 보완한 청년고용촉진대책을 수립해서 금년 1월에 발표하였습니다.

이 대책에 따라서 청년층의 직업관과 직업의식의 확립, 노동시장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서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을 원활하게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청년고용촉진대책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인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노동부는 청년실업대책의 총괄 부처로서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앞으로도 관련 정책을 개선·보완해 나감으로써 청년층

의 고용을 촉진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소중한 지적사항을 관련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노동부 소관 지적사항과 조치계획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은 고용정책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경수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뭐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위원님들이 금방 지적을 했는데, 아니, 이거를 차관께서 보고를 못 한다는 말이에요?

○노동부차관 정병석 저는 관행에 따라서 말씀드린 거고요.

○장경수 위원 이것이 무슨 관행입니까?

○노동부차관 정병석 그럼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재웅 위원 방금 노동부차관 말 끝날 무렵에 저도 이걸 지적하고 싶었는데요.

지금 장관이 안 나오신 데 대해서 위원들이 다 서운하게 생각을 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 무성의하다'는 얘기를 방금 했는데 차관께서 또 밑에 사람에게 보고를 하게 하겠다는 게 관행이라니,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답변을 해야지 관행이라서 이렇게 하겠다는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빨리 사과하십시오.

○노동부차관 정병석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취지는 일자리특위 위원님들한테 보다 소상하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업무를 직접 총괄한 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게 하겠다는 말씀이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직접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인배 차관님 보고해 주세요.

○이재웅 위원 우선 사과하란 말입니다. 지금 사과 안 하고 있잖아요!

○노동부차관 정병석 죄송합니다.

○이재웅 위원 뭐에 대해서 죄송한지 똑똑히 분명하게 사과를 하세요.

지금 정부 답변이 어떤 상임위에서나 똑같아요. 이렇게 무성의하게, 이렇게 오만하게 하는 답변이 어디 있어요.

확실히 사과하세요.

○노동부차관 정병석 정부가 일자리창출 문제라든지 청년실업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어느 정책

보다도 우선순위로 역점을 두어서 해 가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실업 문제는 저희 노동부가 여러 개 부처를 총괄해서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를 위원님들이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결코 소홀히 취급했다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단지 오늘 회의 진행 과정에서 제가 적절하게 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사과를 드리고 이 부분은 제가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인배 차관, 제가 볼 때는 일자리 창출, 특히 청년실업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개개의 의원들한테 보고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대표기관한테 지금까지 지적받은 상황을 보고하는 것 아닙니까? 정부가 관심이 있다면 두 장관님과 청장님이 당연히 출석을 하셔서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정말 국민을 무시하고 우리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감사원의 감사 지적사항 보고잖아요.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안 나오셔도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것은 반성을 해야 됩니다. 정부에서 이 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면 어느 일보다도 더 중요한 국회부터 와서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고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지원해 달라고 하고 필요한 법규가 있으면 제도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해야지 다른 작은 행사 있다고 다 빠지면 어떻게 국회가 운영이 되겠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지금 나라도 어려운데 앞으로 실업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해 주세요.

○노동부차관 정병석 예.

노동부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청년고용현황, 청년고용촉진 대책 개요, 감사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계획입니다.

먼저 청년고용 현황입니다.

금년 5월 현재 청년실업자 수는 34만 5000명이고 청년실업률은 7.1%로서 금년 1월부터 4개월 연속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체감 청년실업은 지표상의 청년실업률보다 심각합니다만 이것은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지 않아서 실업자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취업상태에도 있지 않은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가 다수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실업의 주요원인을 보면 먼저 수요 측면에서는 경제성장속도의 둔화 등에 따라서 일자리 창출 규모가 하락한 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공급 측면에서 보면 아래 표에서 보시다시피 작년 대학진학률이 81.3%인데 이렇게 대학진학률이 급격히 증가한 것이 한 원인이 되겠고 구직자의 눈높이 차이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또한 인프라 측면에서도 공공·민간의 직업안정기관과 학교의 취업지원 기능이 미흡한 것도 그 이유 중의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청년고용촉진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대책을 마련하게 된 배경은 2003년 9월에 마련한 청년실업종합대책에 따라서 저희가 단기 일자리·직장체험·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만 그간에 이런 대책이 단기대책에 중점을 두었다는 지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청년실업 원인분석을 집중적으로 해 본 결과 이런 상황들을 종합해서 학교-노동시장간 이행 원활화에 중점을 둔 청년고용촉진대책을 마련해서 금년 1월 28일에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대책의 기본방향은 청년층에 대한 지속적인 진로지도 등을 통해서 직업관·직업의식을 확립하고 노동시장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서 중장기적으로 청년실업 해결을 도모하면서 단기적으로는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청년실업종합대책을 병행 추진해서 청년층이 근로의욕과 근로능력을 상실하지 않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저희가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은 단기대책보다는 학교-노동시장 이행 원활화를 중심으로 한 청년고용촉진대책을 수립했습니다.

수요 측면에서는 일자리창출을 위한 대책은 거시경제정책과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일자리창출 종합대책에 따라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공급 측면에서는 노동시장 수요에 맞게 대학의 구조개혁을 유도하는 한편, 진로·직업교육을 강화하고 연수체험 확대 등 청년층에 대한 직업의식을 확립하겠습니다. 또한 대학·학과별 취업률을 공표하고 이것을 대학평가에 반영하고 대학의 취업지원실을 지원하는 등 실업발생 이후가 아닌 사전적인 실업의 예방에 역점을 두고 학교, 학부

모, 사회, 정부가 함께 하는 청년고용대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인프라 측면에서는 개인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고용정보 서비스를 확대하고 청년층 개인별 종합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서 청년실업에 시스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수요자인 청년의 입장에서 청년실업대책사업의 연계를 강화하고 상시적인 성과평가를 통해서 효율성·효과성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감사원의 감사 주요 지적사항과 시정·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내용은 노동부 등 24개 기관에서 추진한 2003년부터 2004년까지의 청년실업종합대책 추진 상황에 대한 것이었고, 작년 7월 5일부터 8월 27일까지 예비조사를 하고 나서 10월 18일부터 11월 26일까지 1차 감사, 또 금년 1월 10일부터 1월 28일까지 2차 감사가 진행되었고, 감사결과는 5월 24일에 통보된 바가 있습니다.

노동부 지적사항을 보고드리기 전에 우선 각 부처의 공통된 사항 중 주요한 것을 몇 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청년실업대책사업의 종합적인 평가관리 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동일한 청년실업대책사업을 평가기관마다 다르게 평가하거나 부정적인 평가를 받은 사업의 예산이 증액된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청년실업대책 사업별 평가지표를 현재 개발하고 있고, 앞으로는 청년실업대책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조정·개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둘째는 해외취업 지원사업의 연계가 미흡하고 해외공관의 정보·조직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간의 연계 강화를 위해서 해외취업활성화추진협의회를 지난 5월에 구성해서 이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재외공관에는 해외취업담당관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내년도 예산안에 해외취업 종합정보시스템 구축비도 반영토록 저희가 요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셋째는 청년실업대책 예산사업의 집행과 관련하여 중앙관서 지출실적과 예산현액 대비 보조사업자 최종집행실적을 함께 관리하라는 주문이 있

었고, 동일인이 다수 부처의 다수 사업에 반복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한기준을 마련하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청년실업대책특별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사업의 집행실적을 중앙관서 지출과 함께 보조사업자 최종집행실적을 제출토록 할 방침이고 동일인이 반복 참여해서 타 청년구직자의 참여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한 기준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번째로 청년실업대책 사업으로 적합하지 않은 사업이 포함되었거나 적합한 사업이 제외되는 등 사업의 일부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적합하지 않은 사업이라든지 추가로 포함할 사업의 예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사회적 일자리, 연극 등 시간제 강사 풀, 문화산업 전문인력 교육 등의 사업은 올해 청년실업대책사업 확정 시 이미 제외했고 현재 포함된 사업 중에서 성격이 맞지 않는 사업은 부처 간의 협의를 거쳐서 추가로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감사원에서는 18세 미만자 고용금지 및 각종 자격의 응시를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개정하도록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류사용업, 주류제조업, 유독물사용업 등은 일부 공정만이 유해한데 사업장 전체에 대해서 청소년 고용규제를 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었고 주택관리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공인노무사, 산업안전지도자, 공인중개사 등 11개 자격 시험에서 미성년자의 응시를 제한하는 점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지적에 따라서 청소년 고용금지 및 자격 응시 제한을 규정한 법령은 각계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서 합리적으로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노동부 소관사항에 대한 지적사항과 조치계획입니다.

첫째,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는 직장연수 지원대상에 단순노무직종으로 지식·기술 습득 효과가 없는 외식업소 홀서빙이 포함되어 있고 인턴 인건비를 지원받는 기간 동안 기존 근로자를 해고한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지적에 따라서 지침을 바로 개정해서 감사원의 지적대로 이미 개선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다음에는 구인업체 개척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민간단체 등에 위탁 시행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이런 권고에 따라서 참여자의 취업률 제고를 위해서 직업훈련 이수자와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선발 비중을 높이고 참가자의 직업지도프로그램의 이수를 독려하면서 내년부터 일부 사업물량을 대학이나 민간 취업알선기관에 위탁하는 등 기관간 경쟁을 유도해서 효율성을 제고시켜 나갈 방침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에서는 중소기업청 등 타 공공기관과 민간업체의 구인정보를 획득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워크넷(Work-net) 운영인력도 적정수준으로 확대할 것을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부에서는 워크넷의 구인정보 획득기능 강화를 위해서 이미 수립된 공공·민간의 고용관련 정보망과 연계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으로 있습니다.

또한 금년 3월부터는 중앙인사위원회의 공직채용정보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신문사 등에서 보유한 기업체 정보를 워크넷을 통해서 이미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워크넷 운영을 담당하는 중앙고용정보원의 독립법인화 추진과 함께 운영인력의 증원도 추진할 방침으로 있습니다.

또한 감사원에서는 대학 취업지원센터에 구직신청을 하면 워크넷에 자동 구직신청되도록 하는 등 체계 구축을 권고했는데 이것도 권고에 따라서 금년 7월부터는 워크넷과 연계된 대학 취업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워크넷에 구직등록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으로 있습니다.

다음으로 고용안정센터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별 고용안정센터가 크기 등에서 편차가 크다는 지적이 있어서 청사 마련과 관련해서는 업무량,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해서 종합적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감사원은 직업훈련과 취업알선 업무의 담당부서가 서로 달라서 연계가 미흡하므로 담당부서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이미 지방노동관서 관리과에서 수행하고 있는 직업훈련업무를 고용안정센터로 이관키로 방침을 정한 바 있고 현재 전국 6개 시범 고용안정센터에서는 직업훈련과 취업알선을 연계해서 이미 사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6조에 의해서 수립하게 되어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점과 관련해서는 2003년 11월에 수립한 중기고용정책기본계획에 직업능력개발훈련기본계획도 이미 포함해서 수립한 바가 있고, 급변하는 노동시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 올해 4월 6일에 직업능력개발혁신방안도 별도로 마련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감사원에서는 공공직업훈련기관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서 입학정원에 미달한다든지 높은 중도탈락률 등을 이유로 기능대학과 직업전문학교의 구조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이 점과 관련해서는 지난 4월 6일 국가고용지원서비스 혁신 보고회에서 공공훈련기관의 권역별 통합과 분권화 방침을 이미 확정해서 발표한 바가 있고, 그에 따라서 공공훈련 인프라 혁신 T/F를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관련 법개정도 할 방침으로 있습니다.

끝으로 감사원에서는 직업훈련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 생활권역별로 기업체와 실업자를 대상으로 직업훈련수요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훈련과정을 승인할 것과 직업훈련의 효과 제고를 위해서 훈련희망자의 적성 파악 등을 위한 상담제도를 내실화할 것을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권고를 저희가 수용해서 지역별 인력 및 훈련수요를 실업자 훈련과정에 반영토록 이미 추진 중에 있고 훈련이 필요한 구직자를 대상으로 기초상담부터 심층상담, 수료 후 취업알선까지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할 방침으로 있습니다.

저희 보고를 종합해 보면 이번 감사는 청년실업대책을 전반적으로 점검·평가하여 향후 사업의 합리적·효율적 추진을 도모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보고 있고, 우리 노동부에서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서 법령·지침 개정을 한다든지 내년도 예산 반영 등을 통해서 이런 사항들을 착실히 이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하는 감사원 지적사항과 시정·조치계획을 노동부 소관 및 다른 부처 소관까지 포함해서 표로 정리해 놓았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인배 정병석 노동부차관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청으로부터 감사원 감사결과 및 시정·조치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청 정준석 차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청차장 정준석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청차장 정준석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임인배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중소기업청과 관련되어 있는 청년실업대책의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고 좋은 의견을 듣는 자리가 되어서 아주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전체 중소기업에 1048만 명의 종업원이 근무하고 있어서 우리나라 전체 종업원의 87%를 중소기업에서 흡수해 주고 있습니다. 일자리창출과 관련해서는 선진국도 같은 경향이기는 합니다. 97년부터 2003년까지 6년 동안의 통계를 보니까 중소기업에서 221만 명을 흡수했습니다. 그런 데 반해서 대기업은 127만 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창출과 관련해서는 중소기업을 육성시키는 것이 기본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의 중요한 과제로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중소기업은 인력이 부족한 자리가 아직도 11만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구조적인 차이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청년실업대책과 관련해서 지적한 사항 중에 저희 중기청이 시정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개요는 생략하겠습니다.

이번 감사원의 감사대상은 5개 청년실업대책에 대한 예산사업과 청년고용 증진시책과 관련된 법령이라든지 국가인력 수급전망 법정 계획이 주요 대상이 되었습니다.

청년실업대책과 관련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일을 간단히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체험활동을 하기 위해 연 6만 명 정도를 단기 또는 장기로 해서 40억의 예산을 확보해서 체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업을 증진하기 위해서 34억을 확보해서 창업강좌를 추진하고 있고, 중소기업 청년채용 패키지사업으로 저희들이 5개월 동안 현장연수를 시키면 중소기업에서 고용하게끔 하는 식으로 해서 175

억 원을 투자해서 패키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해외시장 개척요원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1000명을 양성하기 위해 85억의 예산을 확보해서 하고 있고, 청년창업 보육지원은 신규사업으로 작년에 60억을 해서 금년도에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해 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교사들에 대해서 이쪽의 여러 가지 현장체험이나 연수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금년도에 3억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150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이 덜 되어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중앙회를 통해서 다큐멘터리 제작이라든지 사례집을 내기 위해서 13억의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공고생에 대한 취업협약을 맺어서 맺은 사람에 대해서는 병역연기라든지 기업에 대해서는 맞춤형 기업현장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끔 기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이 지적한 내용 중 첫 번째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의해 주기적으로 새로운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몇 년 주기로 한다는 조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문화해야 할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반기에 3년 주기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조항을 개정안에 넣으려고 합니다.

두 번째, 중소기업에 경영·기술지도사라는 제도가 있는데 그 결격사유 중의 하나로, 국가자격 시험에 보면 대체로 미성년자가 많이 빠져 있는데 이것도 감사원에서 지적이 되어서 결격사유 조항에서 미성년자를 삭제해서 미성년자도 기술지도사 자격을 딸 수 있게끔 해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것을 따기 위해서 실무경력 등을 거치다 보면 나이가 미성년자를 훨씬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실익이 없지만 저희가 이 조항도 하반기에 관련법규인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해외시장개척요원 양성 사업이 있습니다.

아까 노동부 차관님이 말씀해 주셨습니까마는 감사원에서는 해외연수·취업 지원사업을 3개 부처가 같이 해서 낭비요인이 없도록 하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KOTRA 등 사업 참여 기관의 정보와 조직을 공동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끔 해외취업활성화추진협의회를 노동부 주관으로 운영하면서 이 틀을 이용해서 협의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해외시장개척요원 양성 사업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후견 중소기업을 지정합니다. 그 과정에서 가급적이면 수출 실적이 있거나 가능성 있는 업체를 통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6월 중에 기준을 마련해서 앞으로 하반기 선정 시에는 후견 기업을 가급적이면 수출 실적이 있는 업체를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창업 강좌는 창업 의욕과 방법을 알려주는 데 상당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창업 강좌에서 몇 가지 지적이 있었습니다.

창업을 통한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창업 분위기 조성 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청년실업 대책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겠다, 분류를 그렇게 해 달라는 지적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변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창업 강좌나 대학생들, 실업계 고교생들의 동아리, 창업경연대회는 사업 유형을 '인프라 구축'으로 재분류하고, 특히 창업 강좌의 경우 운영실태 조사 및 강좌 기관의 강사 정보 관리가 미흡해서 사후 관리에 문제가 되었던 것이 있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리고 창업 동아리를 선정할 때 다소 중복된 것이 약간 있었습니다. 그리고 창업대전에 의무적으로 출품해야 되는데 안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경미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침을 만들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임인배 중소기업청 정준석 차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는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0분씩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장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수 위원 안산 상록갑 출신 장경수 위원입

니다.

일자리 창출, 정말 중요합니다.

사실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어서 거리를 배회하고 어깨 죽 처져 가지고 PC방을 헤매고 있는 청년들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본 적이 있는지, 또 그 어려운 대학을 나왔어도 일자리가 없어 집에서 천덕꾸러기 취급을 당하는 청년실업자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헤아려본 적이 있는지……

저는 그분들의 책임이 아니라고 봐요. 우리 사회 전체의 책임이고 전체가 잘못했기 때문에 젊은 청년들이 취업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인생 초년기에 이렇게 고민 속에서 사는 것을, 우리가 사명감을 갖고 일자리 문제를 봐야 됩니다. 요식행위가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노동부 차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에 보니까 2005년 현재 청년실업자 수가 33만 5000명이고 청년실업률이 7.1%로 1월 이후 4개월 연속 감소되고 있다……

그러면 상황이 조금씩 호전되어 가고 있다는 뜻입니까?

○노동부차관 정병석 저희가 전년도부터 시작해서 월별로 죽 분석을 하고 있는데 지표상으로 봐서 금년 들어와서는 조금씩 나아지는 부분이 있고, 또 실제로 계절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대개 3·4월 들어서서는 실업률이 좀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더라도 지금 청년실업 상황이 전보다 다소 나아지고 있다고는 보입니다.

○장경수 위원 그런데 제가 지역구에 다녀보면 체감 실업률이 아주 높은 것을 알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2005년 5월 현재 통계에 잡히지 않는 청년실업자를 보면 학원형 취업 준비자…… 지금 노량진·신림동 고시학원이 차고 넘칩니다. 이렇게 학생들 많은 것을 처음 봤어요.

23만 9000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학원형 취업 준비자가 작년 동월 20만 9000명보다 19.1% 증가했고 자택이나 독서실에서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칩거형 취업 준비자는 더욱 크게 증가했다고 봅니다.

작년 같은 달 18만 3000명보다 약 30.6%나 급증한 23만 9000명이 된다고 봤을 때 결국 통계에 잡히지 않는 실업자 수만도 48만 8000명으로 보는데, 통계청 발표 자료를 인용해 보면 2003년 1월 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고 봅니다.

따라서 모든 정책 수립은 현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실질적으로 청년실업자 수가 무려 83만 3000명가량임에도 불구하고 아까 보고하실 때 2005년 5월 현재 33만 5000명으로 청년실업률이 계속 감소한다…… 이것은 노동부에서 현 상황을 너무 안이하게 보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중요한 것은 청년실업의 실질적인 실업자 수가 34만 명이 아닌 83만 명 기준으로 해야 무슨 대책도 나올 텐데, 현 상황 파악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차관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노동부차관 정병석 위원님 말씀의 취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희가 공식적인 통계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7.1%, 33만 5000명이라고 발표합니다마는 정부가 청년실업 대책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이 숫자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취업 준비 중에 있는 경활인 구도 분명히 감안합니다.

그래서 취업 준비생이 전보다 훨씬 늘어났다는 것도 저희가 통계로 파악하고 있고,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저희는 청년취업애로계층이라고 표현합니다마는 분류를 따로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넓게 보면 97만 명쯤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 전체를 대상으로 청년실업 대책을 수립해서 참여할 수 있게끔 만들고 있는데 공식적인 통계는 다른 나라와 비교도 하고 또 시기별로 분석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발표한 것뿐이지 실제 대책함에 있어서는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다 감안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경수 위원 그러니까 인지를 하고 있군요?

○노동부차관 정병석 예.

○장경수 위원 또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뿐만 아니라 청년실업 대책의 문제점은 감사원에서 작년에도 지적했고 재작년에도 지적하고 계속 지적해 왔거든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002년과 2003년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는 연수 및 취업지원제를 통해 인력을 활용한 민간기업은 각각 23.3%와 14.9%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올해에도 역시 절반가량의 연수생들은 전공 또는 적성과는 무관하게 지방자치단체 같은 공공기관에 배치되어 가지고 진출입 카드를 정리

한다든가 복사를 한다든가 서류를 정리하는 단순 업무에만 종사하는 것으로 지적받아 왔습니다.

차관께서는 민간기업이 아닌 지자체에서의 단순 업무 수행이 과연 실질적인 직장 체험과 업무 경험 제고라는 본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노동부차관 정병석 위원님 지적대로 상당히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제일 고민하는 것은 인턴을 희망하는 청년들한테 마땅히 인턴을 연수할 수 있는 기관들이 있어야 되고 그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적정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해 줘야 되는데 이런 역할들이 전반적인 사회 인식도 그렇고 해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공공기관보다는 민간기업 쪽에 보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민간기업에서 청년 인턴들을 수용해서 제대로 교육시키겠다는 데가 선뜻 안 나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문제가 생기고, 또 민간기업에 보냈을 때 여러 가지 사중손실효과들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계속 개선해 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경수 위원 그런데 저는 노동부에서 기존의 노조 문제 쪽에만 너무 치중하지 청년실업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신경을 덜 쓰는 것 같아요.

금방 차관님께서도 말했는데 민간에는 그런 것이 많이 없다지만 민간기업에도 얼마든지 노동부에서 행정지도를 해 가지고 그런 일을 인턴사원제 비슷하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노동부 자체에서 만들어서 추천할 수도 있었을 텐데 너무 노동부에서 하기 쉬운, 동사무소 같은 데 가서 복사나 하라는 것은 너무 안이하게 소극적으로 대처한 것 아니에요?

○노동부차관 정병석 저희가 이 부분에 대단히 역점을 두고 있고, 위원님은 저희가 너무 노사관계 측면에만 중점을 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지방관서에 가면 근로감독, 노사 관계를 담당하는 부서하고 청년 취업을 포함해서 고용 문제를 담당하는 부서들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고 지방의 고용안정센터는 이런 쪽에 훨씬 더 역점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단지 많은 청년 인턴 희망자들을 수용하기에 사회 전체적으로 기반들이 잘 갖추어져 있지 않

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바와 같은 효과가 당장 안 나타나고 있다는 안타까움을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장경수 위원** 그런데 6월 9일, 무슨 신문이라고는 말 안 하겠습니까마는 노동부 고위 관계자가 이 문제에 대해서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이냐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그러면서 감사원 지적에 반기를 들었다고 보도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러면 차관님 생각하고 틀리잖아요.

○**노동부차관 정병석** 그 보도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이 공공기관에 간다고 해서 그것을 꼭 나쁘게 볼 것은 아닌데, 단지 일부 공공기관들이 제대로 된 인턴교육 연수를 안 시키고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아주 단순한 작업, 복사라든지 심부름을 시키다 보니까 당초에 의도했던 취지대로 안 되지 않았느냐, 이런 것이 문제가 되고 있을 뿐이지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이냐는 그다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민간기관을 저희가 특히 강조했던 것은 취업과의 연계 문제입니다.

공공기관에서는 연수는 잘 시킨다고 하더라도 바로 취업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민간기업에 가면 연수 후에 바로 취업으로 연결되지 않느냐, 그래서 민간기업이 훨씬 효과가 크겠다, 이렇게 하는데 민간기업 수요가 없는 동안에는 어쩔 수 없이 공공기관에 보내서 제대로 연수시키는 과정을 하는 수밖에 없었다는 사정이 있습니다.

○**장경수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세 분께 말씀드리면, 기존에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의 근로개선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이 과거 십여 년 전에 청년이었다면 분명히 직업을 가질 수 있었는데 이 어려운 경제 환경에서 이번에 대학을 졸업하고 청년이 되다 보니까 일자리 자체가 없어 가지고 일할 기회가 없는데 이분들을 위해서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은 우리들의 책무입니다. 절대 그분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청년실업 문제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인배** 장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웅 위원** 노동부 차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4개 관련 부처들이 청년실업과 관련되어 있지요?

○**노동부차관 정병석** 예.

○**이재웅 위원** 지적받은 부처가 24개 기관이네요?

○**노동부차관 정병석** 예.

○**이재웅 위원** 아까 제가 처음에 지적했습니다마는 국무조정실에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까?

○**노동부차관 정병석**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웅 위원** 도대체 각 부처의 계획에 대해서 몇 번이나 조정을 했습니까?

○**노동부차관 정병석** 청년실업대책특별법이 제정된 것이 2003년 11월인가 그렇고 작년부터 시행되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청년실업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이 여러 가지로 좀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특별위원회만 회의를 세 차례……

○**이재웅 위원** 청년실업대책특별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지요?

○**노동부차관 정병석** 국무총리가 위원장이고 각계 대표들, 관련 장관들이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과거에는 관련 부처 간에 사업 조정이 충분치 못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재웅 위원** 특별위원회 회의를 몇 번이나 했습니까?

○**노동부차관 정병석** 작년 11월 이후에 세 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이재웅 위원** 그런데 세 차례 하고도 이렇게 지적사항이 많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각 부처들에서 승복을 하십니까? 오늘 나온 부처들이라도……

○**노동부차관 정병석**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다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이재웅 위원** 산자부 7건, 노동부 23건, 중기청 5건, 오늘 나온 부처만 얘기하겠습니다.

○**노동부차관 정병석**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는데요……

○**이재웅 위원** 종합적으로 얘기할 것은 없고 우선 제가 묻는 것만 대답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23건, 7건, 5건에 대해서 다 시인을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노동부차관 정병석** 예.

○**이재웅 위원** 그런데 산자부 7건, 노동부 23건, 중기청 5건 중에서도 처분 내용이 다 중복되어 있어요. 협의를 세 차례나 했다면서 왜 이렇게 중복되는 일들이 많이 나오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리고 지금 노동부에는 청년실업과 관련해서 예산이 얼마 책정되어 있지요?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올해 예산이 얼마 책정되어 있습니까?

○**노동부차관 정병석** 예산은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고 우선……

○**이재웅 위원** 아니요, 올해 예산으로 얼마 책정되어 있습니까?

○**노동부차관 정병석** 계수는 알아봐서……

○**이재웅 위원** 산자부는 얼마 되어 있습니까?

○**산업자원부차관보 오영호** 금년도에 261억 원입니다.

○**이재웅 위원** 중기청은요?

○**중소기업청차장 정준석** 저희들은 금년도에 300억 정도……

○**이재웅 위원** 중기청이 훨씬 많네요? 그러면 노동부는 이것보다 훨씬 많겠네요?

○**노동부차관 정병석** 노동부는 사업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재웅 위원** 빨리 확인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금액으로…… 이 세 부처만 하더라도 거의 1000억에 가까운 돈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렇게 가지고도 청년실업 문제의 근본적인 줄기를 찾지 못하고 각 부처마다 연구기관에 용역을 준다 어쩐다, 지금 이렇게까지 시간을 끌어서 되겠습니까?

안 하고 있다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아요. 그저 좋은 아이디어다 싶은 것들 나열만 하고 그 나열한 것들을 그저 시간 돌아가는 대로 정책을 집행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밖에 들지 않아요.

그다음에 지금 각 부처에서 청년실업과 관련해서 내놓고 있는 자격증이 도대체 몇 개입니까?

노동부 자격증이 몇 개입니까?

○**노동부차관 정병석** 우선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재웅 위원** 아니요, 자격증이 모두 몇 개 있습니까?

○**노동부차관 정병석** 그 숫자는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재웅 위원** 글썸, 이런 것도 지금 확인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물론 차관은 다른 복잡한

일들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산자부는 모두 몇 개입니까?

○**산업자원부차관보 오영호** 청년 실업과 관련된 자격증은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요. 기능직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기사 자격증이 있고요, 기술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이재웅 위원** 경영·기술지도사는 지금 중기청 자격증입니까?

○**중소기업청차장 정준석** 그렇습니다. 저희 자격증입니다.

○**이재웅 위원** 경영·기술지도사 자격증이 언제부터 시행되었지요?

○**중소기업청차장 정준석** 그것은 80년대 초반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이재웅 위원** 그러면 경영·기술지도사 자격증을 딴 사람들의 취업률이 몇 %나 됩니까?

○**중소기업청차장 정준석** 지금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1만 3000명 됩니다.

○**이재웅 위원** 그런데 취업한 사람은요?

○**중소기업청차장 정준석** 그 통계는 저희들이 갖고 있지 않은데요.

○**이재웅 위원** 이렇단 얘기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기업에 취업을 해서 도대체 얼마의 월급을 받는지, 지금 이런 게 전혀 파악이 안 되어 있을 거예요.

노동부, 파악되어 있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노동부차관 정병석** 개별적으로 저희가 하나하나 데이터를 갖고 있지는 못하고요, 취업한 사람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다 관리는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그러면 저희가……

○**이재웅 위원** 취업한 사람들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는 게 지금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노동부차관 정병석** 아니, 지금 취업한 사람이 얼마……

○**이재웅 위원** 지금 취업을 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각 부처들이 내놓은 자격증을 따게 해서 취업을 하게 하는 것들에 상당히 역점을 두고 있지 않아요. 그런 정책들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노동부차관 정병석** 아니, 아까 위원님 질의를 자격증을 따 가지고 취직한 사람이 월급을 얼마나 받느냐 그런 취지로 제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사람들……

○**이재웅 위원** 그러면 제 질의를 잘못 받아들이신 것이고요.

○**노동부차관 정병석** 알겠습니다.

○**이재웅 위원** 지금 이렇게 엄청난 예산을 가지고 하고 있는 정부 정책 집행 부분들이 허술하기 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유사·중복은 제가 처음부터 누누이 지적을 했던 부분이고 제일 걱정했던 부분이고요. 문광부도 지금 지적 사항이 5건입니다. 이런 인력들을 이렇게 관리해서 어떻게 청년 실업이 해결되겠습니까? 지금 해결이……

마찬가지로 노동부에서 지금 심각한 수준이라고 스스로 자인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다 이렇게 자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내놓는 정책들의 내용이라든지 집행하는 과정은 감사원 지적에서 보시다시피 아주 형편없어요. 이렇게 하고도 지금 청년 실업을 해결하겠다고 하십니까?

특별위원회에서 세 차례 회의를 했는데 앞으로 더 하실 것이지요?

○**노동부차관 정병석** 예,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감사원의 지적은 2003년도·2004년도 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이재웅 위원** 물론이지요.

○**노동부차관 정병석** 그 결과는 아까도 제가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상당 부분은 이미 저희가 시정을 했고 개선 중에 있는 부분도 있어서 지금 현재도 이렇다 하는 부분은 조금 상황이 다르고요.

그다음에 일부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부각시켜 가지고 그 부분을 개선한다는 취지에서 저희가 즉 말씀드리고 보고드리고 있는 것이지, 구체적으로는 저희가 청년 실업 대책에 상당히 많은 재원을 투입해 가지고 상당히 효과를 냈고 단지 부처 간의 조정 문제나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정부 내에서 실업대책특별위원회를 계속 가동해서 계속적으로 시정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재웅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노동부에서 하고자 하는 직업관·직업의식 확립 교육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떤 내용입니까? 무엇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노동부차관 정병석** 우선 제일 문제가 중소기업 같은 경우 일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리에 안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업에 귀천이 없다……

○**이재웅 위원** 그러니까 눈높이를 좀 낮춰라,

그에 대한 교육을 하겠다는 것이지요?

○**노동부차관 정병석** 예, 맞습니다. 그런 점도 포함해서 굉장히 포괄적……

○**이재웅 위원** 그런 교육에 대한 교육비가 지금 얼마나 책정되어 있지요?

○**노동부차관 정병석** 제가 아주 디테일한 것은 말씀드리기가,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우선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재웅 위원** 차관님, 이것은 디테일한 문제가 아니고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노동부차관 정병석**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재웅 위원** 그렇지요?

○**노동부차관 정병석** 예.

○**이재웅 위원** 지금 예산이 얼마나 책정되어 있지요? 빨리 한번 보고를 해 보시고요.

중소기업청에서도 중소기업 직업관 교육을 하겠다고 했지요?

○**중소기업청차장 정준석** 예, 그렇습니다.

○**이재웅 위원** 얼마 책정되어 있지요? 13억 책정했다고 아까 보고하셨지요?

○**중소기업청차장 정준석** 직접적으로, 인식 제고에는 13억이고요.

그 외에도 중소기업 체험 활동을 통해서 몸으로 체험하는 사업이나 창업 강좌를 할 때도 그런 내용을 포함시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한다면 한 90억 가까이 됩니다. 직접적으로……

○**이재웅 위원** 90억이요?

○**중소기업청차장 정준석** 예, 그렇습니다.

○**이재웅 위원** 그런데 직업관이나 직업의식을 달리하게 한다고 해서, 1등 눈높이를 낮춰라 낮춰라 한다고 해서 눈높이를 낮추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교육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취업을 하고 싶은 사람들, 취업을 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진 사람들 스스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왜 교육비를 이렇게 들이세요? 그것보다는 오히려 좀 더 실질적인 문제를 찾으세요. 이렇게 막연하게, 머리 속에서 생각해도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일들을 왜 자꾸 하세요?

그런 교육은 어릴 때부터 후사회적인 교육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체득되는 것인데 불러 가지고 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직업관·직업의식이 달라지겠습니까?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어떻습니

까?

○**노동부차관 정병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양쪽으로 다 합니다. 우선 학교를 통해서 교육도 하고, 교과서에 반영도 하고 그러니다마는……

○**이재웅 위원** 그러면 학교는 노동부에서 합니까?

○**노동부차관 정병석** 저희가 학교 선생님들을 교육하고, 자료도 보내 드리고, 교재도 만들고 그렇게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재웅 위원** 그것을 왜 노동부에서 합니까? 교육부에서 하면 안 됩니까?

○**노동부차관 정병석** 교육부를 통해서 합니다. 지금 노동부와 교육부가 같이 하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직접적인 직업 지도는 노동부가 개인적인 사례를 통해서 하고 있는 사항들에 역점을 두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모인 것입니다.

○**이재웅 위원** 지적을 하려면 정말 한정이 없지요.

장경수 위원님도 답답하시니까 그런 지적들을 하셨는데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놓고 있는 정책들을 책상머리에서 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들을 좀 더 잘 읽고……

연구기관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봅니다. 연구기관에 있는 사람들, 취업 못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다 취업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취업하지 못한 사람들의 얘기에 좀 더 귀 기울이고, 현장에 좀 더 귀 기울여 주시고 정말 심각하다고 인정한 청년 실업 문제는 특별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조망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종합 대책이 나와야지 각 부처마다 막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임시변통으로 하는 것은 꼭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 시간을 넘겨서 죄송합니다마는,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동부차관 정병석** 예,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자료는 제가 나중에……

○**위원장 임인배** 이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제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제세 위원** 열린우리당 오제세 위원입니다.

정병석 차관님, 감사원 보고서 2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청년고용 동향”이라는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요. 2000년에는 7.6%, 그리고 7.5%, 7.7%, 7.9%, 7.1%로 나와 있는데, 이 표를 제가 보기에……

2000년부터 2005년까지 그 추세가 거의 비슷하게 나와 있다고 보여 주는 것이지요?

○**노동부차관 정병석** 연도별로 조금씩 실업률이 올라갔습니다.

○**오제세 위원** 7.6, 7.5, 7.7, 7.9니까 0.3%, 지금은 7.1%라고 하니까 0.3% 낮고 0.3% 높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청년 실업이 34만 명인가 그렇지요?

○**노동부차관 정병석** 예.

○**오제세 위원** 7.1%가 34만 명이면 1만 명이 채 안 되는 숫자가 0.1%에 해당되거든요. 그러면 매년 2, 3만 명의 차이를 두고 청년 실업 숫자가 왔다갔다 하고 있거든요. 30만 명에서 40만 명……

그러면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청년 실업 문제가 거의 비슷한 상황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2000년의 심각성과 2005년의 심각성이…… 한 5년 동안 상황이 비슷하다는 얘기인가요? 통계상으로 볼 때 7.7%, 7.1%…… 7%대에 있는데 청년 실업 문제가 2000년부터 거의 5년 동안 비슷한 상황이었다고 나오는 것입니까?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그것이고요.

그다음에 청년 실업 대책을 2000년부터 2005년까지 5년 동안 해 오셨을 텐데, 그 강도라든지 효율성을 비슷하게 해 오신 것인지, 또는 그 대책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는 말씀인지, 어떤 것인지?

○**노동부차관 정병석**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그렇습니다.

○**오제세 위원** 시간이 없어서 제가 먼저 총합적으로 질의를 드릴게요.

첫 번째 질의가 그것이고요.

두 번째, 아래의 두 번째 표를 보시면 전체 실업률과 청년 실업률이 OECD 국가보다 우리가 오히려 더 작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OECD 국가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실업률이나 청년 실업 문제가 덜 심각하다는 얘기인지, 그렇지 않으면 소득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실업률은 낮지만 오히려 OECD 국가보다 우리가 더 심각하다고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점을 묻고 싶고요.

오늘 아침 신문에도 유럽의 청년 실업이 5명

중 1명꼴로 거의 20%라는 기사가 났었습니다. 유럽의 청년 실업이 20%인데, 우리나라는 여기에 9.6%로 나와 있고 아까는 7.1%로 보고하셨는데요. 10% 미만인데……

그렇다면 그것이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고 해야 되는 것이냐, 유럽은 20%인데 우리나라의 9%는 그에 못지않게 심각한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고 설명해야 되겠는지 하는 게 두 번째 질의입니다.

세 번째 질의를 드리면, 지금 청년 실업 대책에서 목표가 무엇인가? 7%대의 실업이 5년간 지속되고 있고 정부에서 지금 청년 실업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실업률을 6%로 하는 게 목표냐, 5%로 하는 게 목표냐, 그렇지 않으면 7%를 유지하는 게 목표냐? 뭔가 대책과 목표가 있어야 될 텐데 정부 목표가 뭔지 모르겠다 이거예요.

금년에 7800억을 들여서 20만 명에게 일자리와 훈련과 체험을 시켰다, 그렇다면 매년 이런 식으로 5000억, 7000억을 들여서 20만 명, 10만 명씩 추진을 했을 텐데 그것을 해서 7%대가 유지되고 있는 것인지, 그것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다시 또 말씀드리면, 1년에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이 청년 중에 몇 명이 생기는데 그 중의 몇 명을 취업시켰기 때문에 실업률이 이렇게 계속 유지되는 것이냐? 그러니까 신규 취업 수요와 공급이 어떻게 되고 있기에 이런 7%의 실업률이 나오는 것이냐 하는 것을 세 번째로 묻고 싶습니다.

네 번째는 취업률은 이렇게 낮는데 우리나라는 구직 포기자, 취업 준비자들이 많다, 사시·행시 등 시험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10만 명에 육박하고요. 또 일자리가 시원찮은 데는 안 가겠다, 눈높이…… 청년 실업률도 OECD 국가보다 낮지만 구직 포기자들도 상당히 많아서 취업률도 낮다, 그래서 우리가 청년이나 노인의 취업률을 높여야 된다는 논의도 많이 있거든요.

이것은 체감 실업률하고도 상당히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집에서 노는 애들이 굉장히 많고 부모들이 걱정을 많이 하는데 청년 실업률은 7%에 불과하다고 정부에서 발표를 하고, 실제로는 5명 중에 1명꼴이 될는지 10명 중에 3명꼴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확실히 조사를 하고 계신지……

이런 여러 가지 실업 통계에 대해서 제가 근본적으로 불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통계 기법에 의해서 하시겠지만 거기에 대해서도 명확한

설명이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연간 40만 자리씩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그레가지고 2008년까지 200만 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과연 어떻게 추진되어서 실업률이 변동되고 있는 것인지 하는 것이 나와야지, 실업률을 봐서는 한 5년 동안 전체 실업률이나 청년 실업률이 0.1~0.2%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만날 똑같습니다. 매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매년 똑같이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더 심도 있게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업 문제에 대해서 아까 위원장님과 존경하는 이재웅 위원님께서도 탁상행정식이 아니냐는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좀 더……

실업 문제를 누가 해결해야 되고, 또 어떤 사람들이 참여해야 되느냐? 공무원만이 아니고 기업과 대학과 연구기관과 관이 합심해서 현상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해야지 간단히 통계청에 맡겨서 조사해 가지고 실업이 심각한지 심각하지 않은지, 말로는 심각하다고 그래 놓고 대책은 내내 똑같은 것을 하고 있고 말이지요. 무엇을 물어보면 “실업률이 이렇습니다” 하고 만단 말이지요. 답답합니다.

시간을 제가 많이 썼는데 되는 대로 답변해 주시고요. 나머지는 서면으로 자세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 일자리창출을위한특별위원회가 심도 있게 고민해야 됩니다.

○노동부차관 정병석 우선 아주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상세한 것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실업률 통계만 가지고 정책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2000년 이후에 숫자에 큰 변화가 없지 않느냐, 그런데도 심각하다고 느끼느냐는 지적을 하셨는데요.

아까 제가 장경수 위원님 지적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숫자만 보지 않고 취업 포기자라든지 비경활자, 취업 준비생들을 저희가 다 감안해서 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단지 공식적인 지표는 7.1로 OECD 국가보다 높지 않은데 왜 심각하다고 보느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는 그전의 아주 낮은 숫자에서 98년 이후에 갑자기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체감하는 위기감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이고, OECD 국가의 경우에는

그런 높은 실업률이 계속 유지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와 심각성에서 차이가 납니다. 또 자식에 대한 사랑 같은 것이 다르고 그래서요. 그래서 이 문제는 그렇게 봐 주실 문제고요.

세 번째로 지적하신 양적인 지표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측면에서도 저희는 청년 실업 대책에 있어서 실업률을 얼마로 낮춘다든지 몇 명을 취업시킨다든지 하는 것에 목표를 두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가장 큰 문제가…… 저희는 취업 준비 기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마는, 취업 준비 기간을 우선 짧게 단축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기간을 진짜로 취업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기술을 가르친다든지 현장 적응 능력을 가르친다든지 직장 연수를 시킨다든지 이런 기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겠다는 의미에서 저희가 실업 대책으로 즉 수료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돈을 많이 쓴다고 해서 그 자체가 실업률을 낮춘다든지 취업률을 증가시킨다든지 하는 것에 잘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런 한계를…… 저희의 목표 자체가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은 학부모라든지 학교라든지 학생 본인이라든지 사회 전체가 다 같이 종합적으로 이 문제를 다뤄야 어느 정도 효과를 본다고 보기 때문에…… 정부가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모든 사회적인 캠페인…… 학교와 학생이 다 연계해서 하계끔 저희가 프로그램을 짜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오제세 위원 일자리 창출이 우리 모든 경제 문제의 초점이 되고 있습니다. 경제 빈부 양극화라든지 모든 문제가 팽창은 일자리를 창출해야 된다는 점에 귀결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노동부에서 여러 가지 데이터라든지 실태 조사를 기업, 대학, 가계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하셔야 되고요. 통계가 지금 준비가 상당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스매치 문제, 고용안정센터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경제 전반에 대해서 이것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막연한 진단 속에서 ‘심각하다’ 이렇게 해 놓고 그 대책을 세워서 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 전혀 안 맞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좀더 정밀한 대책이 안 되고 있고 진단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인정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7, 8000억을 가지고 20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그래 가지고 각 부처로부터 할 수 있는 대책을 종합해서, 또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을 총동원해서 하고 있다 이렇게도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것은 일자리 문제에 대한, 경제 문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따르지 않고 피상적인 진단에 따라서 이것이 총 가용한 자원이고 이것이 총 가용한 정책이다 이렇게 해야 될 성질은 아니다.

그래서 저는 문제를 좀더 진단을 해서 이것이 7000억의 문제가 아니라 2조나 3조가 들어가야 될 문제라면 그렇게 하시고요.

또 7000억도 많다, 감사원에서 지적한 대로. 7000억 가지고 한 2000억은 홍청망청 중복 투자하고 잘못 썼다면 정부가 5000억만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이것.

괜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중간 정도 어림잡아서 한 7, 8000억 가지고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확히 5000억이 필요한 것이냐, 2조가 필요한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대답을 찾아서 하셔야 됩니다.

아까 실업 문제에 대해서 목표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정책이든지 어떤 목표는 있어야 되는 것이지, 물론 병에 대해서 체력을 보강하기 위해서 보약을 먹는 것도 중요한 대책이 되겠습니까마는 보약만 먹어 가지고는 안 되지요. 정확히 검진을 해서 장이 나쁜지 허파가 나쁜지를 알고 해야지 허파 나쁜데도 보약만 먹으면 뭐해? 보약 먹어서 나쁠 리야 없겠지만 정확히 알고 진단을 하셔야지 정부에서 그냥 얼버무려서 뭐 이렇게 보약 먹이고 소화제 먹이고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위원장 임인배 오제세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노동부차관 정병석 제가 아주 짧게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오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수용해서 만든 대책이 금년 2월에 만든 청년고용촉진대책입니다.

중전의 실업대책이 단기 대책이고 뭐 임시방편적이라는 그런 지적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작년 하반기에 수요, 공급, 인프라, 여러 측면에서의 원인을 집중적으로 분석해서 했습니다.

○오제세 위원 고용안정센터를 확대하고 해서 노동부 자체적으로는 그 대책이 나온 것을 봤는

데 아까 제가 질의한 OECD와 실업률에 대한, 또 청년 취업률, 실업률, 구직포기자, 이런 것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먼저 좀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노동부차관 정병석** 예, 그것은 정부의 종합적인 대책입니다.

○**위원장 임인배**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차관 정병석** 예.

○**위원장 임인배** 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전남 목포 출신의 이상열 위원입니다.

노동부차관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새로운 청년실업 해결 방안, 그러니까 청년고용촉진대책이 금년 2월에 마련되었습니까?

○**노동부차관 정병석** 1월 28일에 되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어느 정도 시행되고 있는 내역은…… 오늘 보고에는 “마련이다”, “추진이다” 이렇게만 되어 있지 구체적인 내역은 안 나와 있는데요?

○**노동부차관 정병석** 오늘 보고는 2003·2004년도 청년실업대책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계획을 보고하도록 저희가 지적을 받았습시다. 그 위주로 했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이상열 위원** 감사원 지적 사항에 대한 보고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되어 있다는 말씀인데……

아까 우리 이재웅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고 장경수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청년실업률이 금년 1월 8.7%에서 지표상으로 보면 순차적으로 낮아져서 5월에 7.1%로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노동부차관 정병석** 예.

○**이상열 위원** 그러면 금년 1월부터 5월까지 이렇게 순차적으로 청년실업률이 낮아지고 있는데 이렇게 청년실업률이 낮아지는 어떤 원인이나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지금 노동부에서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노동부차관 정병석** 우선 월별로 봤을 때 대개 4월 이후에는 실업률 자체가 낮아집니다, 전체적으로 연간 평균치가 낮아지지 않더라도 낮아진다는 것. 전반적으로 1·2·3월 이때가 구직 활동을

왕성하게 하기 때문에 그때가 통상적으로 실업률이 높고, 실제 취업 효과가 나타나는 4월 이후에는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방학 기간 중에는 파트타임, 아르바이트하는 학생들도 실업자로 잡히는 그런 문제가 있기는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실업률 추이가 큰 변화는 많지 않습니다마는 올해가 작년보다도 다소 낮아졌다 이렇게……

○**이상열 위원** 아까 보고하실 때 다소 낮아진다고 말씀하셨는데 다소 낮아지는 주된 원인이나 이유를 노동부에서는 뭐라고 파악하고 계시느냐 이 말입니다.

○**노동부차관 정병석** 이게 뭐라고 그럴까, 수요 공급 차원에서 적응을 해 간다고 생각합니다. 대졸자들의 경우에도 눈높이를 낮추어서 하향 취업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미스매치가 있는 부분들을…… 실제로 일자리가, 사람을 많이 구하는데 적절히 못 쓰는 데도 저희가 충분히 공급을 하고 그래서 그런 미스매치가 조금씩 줄어들면서 이런 것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 점을 물어보는 이유는 아까 차관께서도 물론 계절적인 요인도 있지만 다소 좋아진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노동부에서 그렇게 좋아지는 원인이나 이유가 뭔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그래야 그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어떤 정책 우선순위를 둔다든지, 어떻게 해야 청년실업이 해소되겠다 하는 이런 처방을 내리는 데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노동부차관 정병석** 예, 알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2003년 9월 청년실업종합대책을 확정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노동부차관 정병석** 예.

○**이상열 위원** 그래서 지금 보고 내용을 보면 2004년에도 한 5600억의 예산을 세워 가지고 15만 명의 청년들에게 어떤 단기 일자리, 직장 체험, 직업 훈련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예산을 한 5800억, 그러니까 한 103% 집행했고, 15만 명에게 이런 자리를 제공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18만 6000명이 참여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그 내용은 맞습니까?

○**노동부차관 정병석** 예.

○**이상열 위원** 2004년도 청년실업종합대책에 5600억, 금년은 7800억을 투자해서 하겠다는 것인데, 그러면 2004년도에 5600억을 투자해서 18만 6000명에게 단기 일자리, 직장 체험, 직업 훈련 기회를 제공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5600억을 투자해 가지고 고용으로, 실질적인 일자리로 연결된 청년 실업자는 몇 명이나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노동부차관 정병석** 아까 제가 청년실업대책의 한계와 목표를 말씀드렸는데요, 이 대책은 직접적으로 취업을 시키고 그런 목표라기보다도 이 기간을 본격적인 취업에 대한 준비 기간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그런 데 목표가 있고, 그다음에 취업 준비 기간을 짧게 하는 것이 사실 중요한 저희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대책의 효과로서 직접적으로 몇 명이 취업을 했느냐 이런 것은 분리가 잘 안 됩니다. 다름대로 목표 자체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것보다도 취업 준비 기간을 효율적으로, 더 나은 직장에 취업할 수 있게끔 하고 그 기간을 짧게 하는 데 훨씬 더 중요한 실질적인 목표를 두고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물론 차관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이해가 되는데 지금 청년실업률이 높아 가지고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해서 2004년도에 한 5600억을 투입해서 15만 명의 일자리, 마치 15만 명의 일자리를 제공했다하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실질적인 것은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단기 일자리, 직장 체험, 직업 훈련 기회를 청년들에게 제공하겠다는……

○**노동부차관 정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또 금년에도 한 7800억을 투자해서 그렇게 청년들한테 그런 직업 훈련, 직장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하는 건데 결국 궁극적인 목표는 청년의 실업을 해소하자는 것 아닙니까?

청년 실업률을 낮추자고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청년실업종합대책을 노동부가 주관해서 중점적으로 한다면 단순히 직장 체험, 직업 훈련 기회, 단기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이게 실질적인 고용으로 어느 정도 연결이 되는지 이런 정도는 노동부에서 충분히 파악하고 여기에 따른 대책을 세운다든지,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한다든지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동부차관 정병석**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직장 체험 프로그램, 인턴 제도 같은 것을 보면 처음 3개월 인턴을 거쳐서 기업에서 채용이 전제가 될 경우에는 다시 3개월 연장을 해 줍니다.

실제로 이런 프로그램들이 직접적으로 해당자의 취업으로 연계되는 그런 효과까지는 상당히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일이 그것을 분석해서 집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목표 자체를 직접적으로 채용으로 연결하는,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그렇게 드린 것입니다.

○**이상열 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노동부차관 정병석** 예, 알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게 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미성년자에 대한 응시자격 제한이라 해서 감사 결과에도 나와 있던데 주택관리사나 건축사, 이런 11개 자격에 대해서는 지금 미성년자에게 응시자격이 제한되어 있습니까?

○**노동부차관 정병석** 일부 제한되는 데가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물론 주택관리사나 건축사는 다른 부처 자격시험이니까 그것은 논외로 치더라도 공인노무사는 노동부에서 주관하고 있지요?

○**노동부차관 정병석** 예.

○**이상열 위원** 그러면 지금 공인노무사도 미성년자한테 응시 기회를 안 주고 있습니까?

○**노동부차관 정병석** 예.

○**이상열 위원** 응시 자격 자체를 주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노동부차관 정병석** 자격증 제도 관련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깊게 생각할 부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공인노무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학력에 대한 능력뿐만이 아니고 실제 현실 노사 관계에 대한 상당한 경험, 뭐 이런 것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과연 미성년자한테 응시 자격을 주는 것이 합당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더 해야 되겠고요.

아까 몇 개의 자격증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자격증 분야의 지적은 미성년자에게 다 터주는 것이 정말 그 제도 취지에 맞는 것인가? 또 사회 공익에 더 기여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노무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현실 노사 관계에 대한 경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봤기 때문에 미성년자는 적절하지 않다고 저희가 그렇게 운영을 해 온 것입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공인노무사에 대해서는 미성년자한테 응시 자격을 안 주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차관께서는 보십니까?

○**노동부차관 정병석** 예,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마는, 이 몇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는 감사원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광범하게 사회 여론을 수렴해야 되겠다, 좀더 깊이 검토를 하는 과정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더 따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인배**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박상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돈 위원** 천안 출신 박상돈 위원입니다.

용어 문제인데요, 우리 정부 공무원들도 반성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쓰는 용어 중에 부적절한 용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대표적인 예가 ‘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표현입니다. 고용 없는 성장이 적절한 표현이냐? 사실 그것은 상대적으로 고용이 좀 적은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고용 없는 성장이라고 표현하지만 성장을 하면 당연히 고용은 따르지요. 상대적으로 좀 적다는 것뿐인데, 대체 용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7, 80년대에는 우리가 성력화(省力化)라는 표현을 많이 썼지 않습니까? 성력화해야 된다. 인력을 좀 덜 쓰는 그런 산업화, 또는 기계화 이런 것을 성력화라고 그랬습니다.

그랬지요?

○**노동부차관 정병석** 예.

○**박상돈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한참 쓰다 보니까 이제 그것이 부작용으로, 역기능으로 나타나는 것이 말하자면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고용 없는 성장 같은 것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고용 없는 성장을 하다 보니까 실업률이 늘어난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주의 깊지 못한, 사례 깊지 못한 표현이다. 이것을 당연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 고용할 수 있는

여지는 얼마든지 있는 거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성장만큼 고용이 뒤따라주지 않는 현상 때문에 실업률이 증가되는’ 이런 식의 표현이 되든지, 아니면 걸 맞는 대체 용어를 노동부부터 써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동부차관 정병석** 예, 위원님 지적을 저희가 잘 검토하겠습니다. 고용 없는 성장은 국제적으로 쓰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박상돈 위원** 글썄, 국제적으로 쓰지만 부정적인, 상당히 아주 자신감을 떨어뜨리게 하는, 아주 그냥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을 당연시하는 그런 무엇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는 다 쓰더라도 우리는 쓰지 말아야 될 용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동부차관 정병석** 예.

○**박상돈 위원** 그다음에 고용을 많이 늘리기 위해서 서비스 산업을 육성시켜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비스 산업 중에서도 주로 정부가 생각하는 서비스 산업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노동부차관 정병석** 서비스 산업이 크게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음식·숙박업과 같이 개개인 소비자를 위한 서비스 산업이 있고, 또 하나는 IT라든지 정보 처리라든지 좀더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 산업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말하는 것은 후자 쪽에 가까운 것들입니다. 문화 산업이라든지 관광 산업도 그렇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수요를 넓혀 갈 수 있는 여지가 대단히 많은 서비스 산업들입니다.

○**박상돈 위원** 그런데 감사원 감사를 보면 외식 산업 서빙 요원들 고용과 관련해서 고용촉진기금을 지원해 준 사례가 잘못된 것으로 지적되어 있잖아요?

○**노동부차관 정병석** 예.

○**박상돈 위원** 사실 그것은 현상으로 보면 이해가 됩니다. 대학생들 고용 못 해서 외식 산업 업체…… 잘 사는, 그래도 부유한 업체들이거든요. 경쟁적으로 대학생들 고용하려고 그러는 데에 고용촉진기금을 대준다는 것이 저는 적절치는 않다고 보지만 이렇다 보니까 서비스 산업의 기준이 문제가 된다, 어떤 때는 지원해 줄 수 있고 어떤

데는 지원해 주지 말아야 되는 건지 한계가 좀 모호해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 아닌가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동부차관 정병석** 감사원 지적은 굉장히 타당하다고 저희는 보는데요.

외식 홀 서빙 그 자체가 서비스 산업이어서 문제되었다기보다도 그 일 자체가 대졸자들한테, 대학생들한테 앞으로 어떤 직업에 대한 충분한 연수 효과가 있는 직업이냐? 그런 측면에서 그 자리는 별로 적절치 못했다고 본 겁니다. 비슷한 일을 하더라도 호텔에서 체계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인정을 해 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 자체는 그런 효과 면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지……

○**박상돈 위원** 노동부가 고용 정책의 총괄 부처지요?

○**노동부차관 정병석** 예, 총리실에서……

○**박상돈 위원** 그 총괄의 의미가 뭐니까?

○**노동부차관 정병석** 청년실업대책이라든지 이런 게 관련된 부서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산자부도 있고 중기청도 다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전체적인 큰 시각에서 총괄 취합을 하고, 그다음에 기본적인 방향을 정립하고 나름대로 조정을 하고 그런 역할을 어느 부처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랬을 때는……

○**박상돈 위원** 단순한 어떤…… 소위 공무원 사회에서 호치키스를 누르는 부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요? 정책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때로는 방향 제시도 하고, 또 문제점이 있을 때는 각 부처를 소집해서 회의에도 붙여서 대책을 산출해 내고 이런 역할을 노동부가 하는 거지요?

○**노동부차관 정병석** 예, 큰 틀에서의 역할은……

○**박상돈 위원** 그렇다면 감사원 감사의 상당 부분을 사실은 노동부가 책임을 느껴야 될 부분이네요?

○**노동부차관 정병석** 그렇습니다.

○**박상돈 위원** 청년실업자 해소를 위해서 인턴 채용 기업에 대해서 취업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있잖아요?

○**노동부차관 정병석** 예.

○**박상돈 위원** 그것도 보면 1127명을 채용하도록 지원해 줬는데 같은 기간에 거의 같은 인원을 업체에서는 해고를 했다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 노동부가 일선의 노동지도를 조금만 주의했어도

예방할 수 있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동부차관 정병석** 그것은 잘못된 사례입니다. 즉각 저희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돈 위원** 또 정보통신부가 앞으로 유망 직업은 IT 관련 분야다 해서 학생들을 잔뜩 양성해 놓고 나중에 보니까 실제 전망보다 한 7만 명이나 부족한, 2만 명 정도밖에 취업이 안 돼서 결국은 잔뜩 양성해 놓은 사람이 전부 다 실업자로 전락해 버리는 수요 예측의 실패들도, 사실 어떤 면에서는 노동부가 정보통신부보다도 더 예측력이 우수해야 되지 않습니까?

○**노동부차관 정병석**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총괄적으로 인력 수급을 전망하고 거기에 따라서 각 부처가 대책을 하도록 했어야 되는데 세부적인 개별 산업에 대한 전망 부분들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정보통신부가 한 부분이 실제 추이와 많이 거리가 있었다는 지적들입니다.

○**박상돈 위원** 감사원 감사를 보면 물론, 저는 답답한 것이 감사원이 감사해서 내부적으로 참고해야 할 사항과 외부적으로 공표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줄 일의 구분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볼 때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그러나 고용보험과 관련해 정말 어처구니없이 매달 꼬박꼬박 봉급에서 기금을 뺐는데 나중에 보니까 잘못 됐다 이런 것은 국민들을 헛심 빠지게 하는 일 아닙니까?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면 급여에서 매월 고용보험을 떼었는데 보험료를 때문에 생긴 현상이지만 이것은 97, 98년 IMF 직전후의 보험료를 차이인데, 아주 실업자가 많이 생겼을 때 대비해 책정했던 보험료를 현재까지 그대로 적용해서 과도하게 개인 월급자들이 보험료를 더 추가로 뜯기게 하는 것들은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사례들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의 행정지도를 총괄부처답게 잘해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노동부차관 정병석** 위원님, 그 부분은 조금 오해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98년도, 99년도 IMF 실업시대에 높게 책정된 보험료를 지금도 유지해 보험료를 지나치게 많이 거뒀지 않느냐는 지적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것은 조금 사실과 다른 것이 그때 높았던 보험료를 분명히 낮추었습니다. 기금이 많이 적립되어 있는데, 원래 고용보험기금은 실업시대에 대비해서 항상 적립해 놓는 것이 국제적인 추세인데 이 적립금이 감사원에서 보기에 좀 많지 않느냐는 지적이고요.

또 하나 더 중요한 보험료 문제가 된 부분들은 개별 근로자가 낸 보험료가 아닙니다. 실업급여 보험료는 지금도 여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기업만이 내는 보험료가 있습니다. 고용안정사업보험이라든지 능력개발사업보험은 기업만이 부담하는데 그쪽에서 특히 고용안정 사업 쪽에서 적립금이 너무 많이 쌓였다, 거기의 사업비는 적었지 않았느냐는 지적이지 개별 근로자가 낸 부분에서는 그런 일이 안 생겼습니다.

○박상돈 위원 종합적으로 보면 실업률을 낮추는 데 너무 급급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아까도 차관께서 모두에 실업률을 지표로 설명하면서 금년 초부터는 안정적으로 실업률이 관리·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비교적 다행스럽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실업률이 약간 등락이 있는 것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 아주 고지식할 정도로 취업을 늘려 나가는 그 자체에 포커스를 뒤야 된다, 실업률이 문제가 아니라 미국이나 독일이나 프랑스처럼 교과서적으로 단기 성과에 얽매이지 말고 학교교육과 직업훈련 또 취업을 위해서 취업의 그물망을 다시 한번 재점검해야 할 때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노동부차관 정병석 예.

○박상돈 위원 시장의 눈높이에 맞춰서 인력 양성을 하는 것은 두말할 여지가 없습니다. 잘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인배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안홍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홍준 위원 마산을 출신 안홍준 위원입니다.

오늘 국회 일자리창출특위가 아주 중요한 특위임에도 불구하고 관계부처 장관들의 무성의로 질책을 받았습니다.

또 국회 특위위원 입장에서 보면 오늘 저희도 할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출석률이 굉장히 저조하거든요. 심지어 여야 간사를 비롯해서 많은 분이, 3분의 2 정도가 불출석한 것 같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저희가 과연 부처를 질타할 수

있는지 저희 특위 차원에서도 반성이 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먼저 질의를 하기 전에…… 청년실업률 해서 청년이라는 기준을, 연령을 몇 세에서 몇 세까지를 보고 통계를 낸 것입니까?

○노동부차관 정병석 여기 통계에서 나오는 청년은 15세부터 29세까지 잡았습니다. 연령별로 다르게 분류할 수도 있습니다만 대개 다른 나라와 비교를 위해서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홍준 위원 감사원 결과보고서 2페이지를 보면 15세에서 24세까지로 되어 있거든요.

○노동부차관 정병석 그런 자료도 충분히 낼 수가 있고 그런데요.

○안홍준 위원 물론 낼 수는 있는데……

○노동부차관 정병석 저희는 다른 나라와의 비교 부분 때문에……

○안홍준 위원 어쨌든 같은 대한민국에서 나온 청년실업률을 어떤 부처는 29세까지 기준으로 하고 또 감사원은 24세까지 기준해서 혼돈을 초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 안에서라도 통일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 29세까지로 했을 때 29세에서 30세가 되어서, 30세에서 31세가 되면 취업을 하면 다행인데 취업을 하지 않고 그대로 실업자로 남아 있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나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취업률은 더 낮아진다고 봐지는데 그렇다면 29세 이후 31, 2세 나이가 통계 허수에, 그 외에는 장년이라는 표현을 합니까? 청년하고 대비된 실업률이 있습니까?

○노동부차관 정병석 그냥 일반 실업률로 표현하고요. 저희가 고용 대책을 할 때는 연령·계층별로 충분히 분석해서 합시다마는……

○안홍준 위원 청년이라 하더라도 상대적인 장년이라든지 노년이나 의학적으로 보면 그렇게 분류가 되는데 장년실업률이라는 통계를 내고 있습니까?

○노동부차관 정병석 연령별로는 실업률을……

○안홍준 위원 연령별이 아니라……

○노동부차관 정병석 그런 용어는 잘 안 쓰는 것 같습니다, 준고령자 이런 표현을 씁니다마는.

○안홍준 위원 젊은 청년실업률이라는 것은 대학을 졸업했던 고등학교를 졸업했던 한 번도 취업 못 하고 실업자로 남아 있는 상태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청년실업률을 따로 낸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감사원에서 24세로 했을 때 25세, 26세, 27세는 뭐냐는 거고 또 29세까지 했을 때 말씀드린 대로 30세 이후 실업자가 포함이 안 되는, 아까 장경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여러 허수에 그런 연령에 따른 실업자도 포함이 실제로 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노동부차관 정병석** 위원님, 감사원 보고서에 나와 있는 숫자는 15세에서 29세까지로 우리나라는 그렇게 잡고 있고 다른 나라가 24세까지 잡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비교하려다 보니까 2페이지 아래 있는 표가 나온다는 취지입니다. 연령별로 다 분석 가능합니다.

○**안홍준 위원** 알겠습니다.

노동부 차관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원의 이번 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으로 노동부장관에게 구직자의 궤찮은 일자리 선호 현상 및 3D 3S 업종을 기피하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하여 방송, 신문 등에 공익광고를 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하였습니다.

소위 미스매치(Mismatch)라고 불리는 이 문제는 실업의 근본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아야 하나 단기적인 대책을 통해 국민들의 인식을 전환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원에서도 이러한 취지로 조치사항을 통보했다고 보여지는데 유감스럽게도 오늘 배포한 노동부의 시정조치계획에는 이에 대한 조치계획이 빠져 있습니다.

일자리 선호 현상과 3D 3S 업종 기피 현상에 대해 노동부는 어떠한 기조로 접근하고 있고 또한 단기적으로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노동부차관 정병석** 위원님 지적이 대단히 중요하고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가 설명드린 금년 1월 28일 만든 청년고용촉진 대책에는 사실 그런 부분들이 대단히 중요하게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중장기 대책이고, 실제로 저희가 단기적으로도 고용안정센터의 고용서비스를 통해서 직업지도에 관한 사항, 눈높이를 낮추기 위한 직접적인 직업 적성검사를 한다든지 직업지도를 하고 있고요.

또 실제로 직접 대졸자들에게 가도록 직업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학교를 통해서도 그런 교

육들을 지금 당장 해 가고 있습니다. 계속 학생들을 초청해서 직업고용안정센터에서 직업 세미나를 한다든지 일자리 정보를 제공해 준다든지 이런 노력들을 단기적으로 해 가고 있습니다.

○**안홍준 위원**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인 연수지원제 사업의 경우 연수수료생들은 노동부장관 명의의 연수인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취업 시 경력으로 활용하거나 대학에서는 학칙에 따라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기업이나 대학이 채용이나 학점 이수 과정에서 연수인증서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노동부는 현재 기업이나 대학이 연수인증서에 대해 어떠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를 파악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실태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차관 정병석** 그 부분은 국장한테 설명드리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좀 상세한 것을 담당 국장이……

○**안홍준 위원** 지금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차관 정병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안홍준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벌이는 것도 중요하나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고 시도에 그치는 사업들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사업이라도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단지 체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나 대학이 원하는 수준으로 체험의 내용을 심화시키고 기업이나 대학도 일정한 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해서는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노동부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차관 정병석**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강제한다기보다 대학하고 기업이 협정을 맺어서 해 가는 것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학에서 이러한 연수를 받은 경우는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이런 부분의 협정을 해 가고 있거든요. 그런 것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적극 권장해 가겠습니다.

○**안홍준 위원** 산업자원부 차관께 질의하겠습니다.

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 결과를 토대로 산업자원부에 대해 사업 실적이 저조한 신기술 중소기업 인력지원 사업의 시행을 재검토할 것을 통보하였습니다.

감사원이나 산업자원부는 구인·구직의 미스매칭이 동 사업의 부진 사유라고 분석하고 있는데 사업 절차로 볼 때도 동 사업으로 인한 장기적인 고용촉진 효과를 기대하기 힘든 형편입니다.

산업자원부 차관, 처음부터 성공하기 힘든 사업이 아니었습니까?

○산업자원부차관보 오영호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처음 시행된 사업이었는데요. 작년도 추정 만들어지면서 청년실업 대책으로 추가된 사업입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상시 근로자 1000인 미만인 중소기업으로 한정하다 보니까 이쪽에 취업할 수 있는 취업률이 떨어지고 또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집행률도 떨어지고 그랬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작년 10월 노동부에서 청년고용촉진장려금 제도를……

○안홍준 위원 짧게 줄여 주십시오. 시간이 다가고 있습니다.

○산업자원부차관보 오영호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노동부의 제도에 비해서 조건도 그렇고 떨어지기 때문에 금년도부터는 이 사업을 폐지하기로 정했습니다.

○안홍준 위원 또한 이 사업의 지원기관 및 지원액 등의 조건에서 노동부가 추진하고 있는 유사 사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점을 또 하나의 부진 사유로 설명하고 있는데 본 위원은 이 사실 역시 청년실업 문제를 바라보는 정부 측의 안이한 시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고용촉진 대책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추진하면서도 부처 간의 조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유사한 내용의 사업이 중복될 가능성이 많을 뿐만 아니라 보다 좋은 혜택을 주는 타 부처의 사업 때문에 사업을 중단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과 관련하여 노동부와 사전 협의를 한 일은 있습니까?

○산업자원부차관보 오영호 아까 말씀드렸다시

피 저희 신기술 중소기업 인력지원 사업은 먼저 만들어졌고 노동부의 사업이 10월에 더 좋은 조건으로 좋은 프로그램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노동부하고 협의해서 금년도부터는 노동부 사업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안홍준 위원 동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 노동부가 주관하고 있는 청년고용촉진장려금지원 사업,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지원 사업 등이 있는데 유사 사업을 통합하고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보는데 이에 차관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산업자원부차관보 오영호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안홍준 위원 이상입니다.

나머지는 서면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인배 안홍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당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특위에 보고하신 산업자원부, 노동부, 중소기업청 이상 3개 기관에서는 오늘 우리 특위 회의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하신 고견들을 깊이 유념하셔서 향후 정책 개발과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질의 중에 위원님들께서 서면으로 질의하신 것이 있습니다. 해당 부처에서는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취지에 부합하는 서면답변서를 충실하게 작성하여 7월 9일까지 모든 위원님들께, 우리 특위 행정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모두 위원회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 그리고 정부 각 부처 관계자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산회)

○出席委員(10人)

김 교 홍	박 상 돈	박 순 자	안 홍 준
오 제 세	이 상 열	이 재 응	임 인 배
장 경 수	한 병 도		

○出席專門委員

수석전문위원	하	종	범
전문위원	이	동	근
○政府側 參席者			
노동부차관	정	병	석
산업자원부차관보	오	영	호
중소기업청차장	정	준	석